

제 3 회 아시아 미래회의 보고 #

◆이마니시 준코 「원탁회의『일본·중국·한국에서의 국사들의 대화의 가능성』보고」

2016 년 9 월 30 일 (금) 오전 9 시부터 12 시 30 분까지 기타큐슈 국제회의장 국제 회의실에서 원탁회의 「일본·중국·한국에서의 국사들의 대화의 가능성」이 개최되어 일본, 중국, 한국의 역사연구자들이 모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88 명 정원인 대회장이 만석이 될 만큼 사람들의 높은 관심이 표출되었다.

먼저 와세다대학의 유걸(Liu Jie)교수는 문제 제기 가운데 「어째서 『국사들』의 대화인가」「『국사』에서 『역사』로」「대화 가능한 『국사』연구자를 육성한다는 것」을 표제로 최근 10 수년간 일본·중국·한국의 「역사인식문제」를 둘러싼 대화의 성과, 그리고 유학생의 증가와 대학의 국제화에 따른 「국사」에서 「역사」로의 변화를 인정하는 한편 「국사들」의 대화를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현재의 연구자 교류를 더욱 추진하면서 10 년후, 또는 20 년후에 본격적인 국사들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의 조광(Cho Kwang)명예교수는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는 자민족 중심주의와 국가주의적인 경향에서 유래한다고 규정하고 한국에서 근래 편집된 학교 교과서와 학회의 일본관계사, 중국관계사의 서술에 관해 분석했다. (1)「전근대 중국에

대한 서술」에서는 고구려사를 둘러싼 혼란을 통해 「화이의식」에 대해 언급하고 (2)「전근대 일본에 대한 서술」의 결론으로서 「전체적으로 (한국의)교과서에서 보는 전근대 일본은 문화 후진국으로서 (조선의) 선진문화의 수역자, 그리고 침략자로서의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의 국면에서는 타당이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일본을 하나의 제대로 된 관계 주체로서 간주하지 않는 국사교과서의 인식은 한국을 둘러싼 현재의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바른 한일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3)「근대동아시아에 대한 서술」에서는 19 세기 이후의 동아시아가 일국의 상황만으로 자국사를 서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3 국의 역사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중국과 일본의 근현대사에 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 한국전쟁의 경우 조차 내부정치와 경제, 사회에 관한 설명은 넘치는 반면 참전 각국의 논리는 소개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근현대사인 경우 중국사 뿐 아니라 일본사와 연결 설명함으로써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하고 자신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남을 읽을 것인가라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결론 맺었다.

북단대학의 갈조광(Ge Zhaoguang)교수는 「몽고내습」(1274,1281),「응영의 역」(1419),「임진정유의 역」(1592,1597)을 예로 들어 국별사와 동아시아사의 차이에 관해 논했다. 일국사의 시점에서 보면 하나의 원중심부는 명확히 드러나지만 주변부는

희미해져 버린다. 만일 몇개의 원중심이 있다면 수개의 역사권이 형성되어 이들이 겹치는 부분도 발생한다. 동아시아사를 말할 때에는 이러한 역사권이 겹치는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가령 몽고내습에 의해 일본이 처음으로 「신국」으로 인식되어 일본문화 독립의 단서가 되고 중국의 「화이질서」에서 이탈했다고 일본사에는 기술된다. 한편 고려는 몽고화되어 몽고인이 일본을 침략할 때 그 전선기지가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에서는 몽고/원조가 「자국사」로 간주되고 몽고내습은 몽고와 일본과 고려라는 중국의 밖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여겨진다.

동아시아 전체의 시야에서 보면 몽원의 일본침략 (또는 고려를 종속국으로 한것)은 동아시아의 정치국면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각국의 자아의식을 환기시켜 동아시아의 「중국 중심」의 풍조가 점차 변화해 간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응영의 역의 발생과 그 해결은 그 후 수백년동안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안정을 이끌어냈다. 「임진의 역」은 그때까지의 안정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크게 흔들며 이후 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던 아이덴티티의 붕괴의 복선이 되었지만 당시 이 사건은 신속히 진정되어 동아시아의 균형을 이룬 국면은 19 세기 서양제국이 무력을 배경으로 동양에 진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에서는 몽원의 일본침략과 고려지배는 단지 몽고인의 세계 지배의 야심의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조선의 쓰시마에의 침공도 이웃나라끼리의 분쟁으로 서술된다. 「임진의 역」에 이르러서는 일본은 침략자로 중국은 조선의 국제적인 친구로서 양국이 협력해 일본의

침략군을 패배시켰다고 명언한다. 만일 역사가가 동아시아사의 시야에서 이를 재정립할 경우 새로운 인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경대학의 미타니 히로시 명예교수는 국사들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1)일본에서의 고교 역사교육 과정의 개정에 관해 보고하고, (2)일본사 교과서 속의 세계·동아시아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의 고등학교에서는 「역사종합」이 필수교과가 될 예정이다. 「역사종합」은 (a)세계사와 일본사를 융합하여 (b)근대사로 집약하고 (c)액티브러닝을 권장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동향에 학회와 교육계가 협력할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일본사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최근 발생한 이웃나라와의 관계 약화는 동아시아 속에 일본의 위치를 정립한다는 연구 동향에 찬물을 끼얹었다. 내외에서 밀려오는 정치 압력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전개가 가능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3)상호 이웃나라의 국내사를 배워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중일 3국 지식인들의 구미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이웃나라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대조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제관계 뿐 아니라 먼저 상대국이 어떤 문맥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 안된다는 것과 이웃나라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선입관에 빠지지말고 서로가 마음을 비워 서로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국사들의 대화」의 궁극적 과제라고 맺음지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 대가들에 의한 대국적인 강연에 이어 6 명의 중견 신진 연구자들로부터 코멘트가 있었다.

기타큐슈 시립대학의 야오 게이스케 교수는 먼저 근대사에 있어서 대 구미관계와 동아시아에 대한 시점과의 비중에 관해 한중일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논점정리를 시도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국민국가로서의 한중일의 입장의 차이와 전근대동아시아사의 국민국가의 시점을 떠난 재고를 통한 근대동아시아 국민국가에 대한 검증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지적했다.

홋카이도대학의 하시모토 유 준교수는 1402 년에 거행된 아시카가 요시미쓰에 의한 명사절 접견의례를 복원하고 요시미쓰가 명사절에 대한 배려와 경의를 표하며 얼마나 자존의식을 만족시키는 의례에 환골탈태 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일본사를 말할때 대외관계사의 성과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단순히 외국사의 문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양측 문맥에 주의하면서 각국 사료를 실증적으로 대조해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 않으면 「국사」는 편향되어 버릴것이라고 지적했다.

와세다대학의 마쓰다 마미코씨는 「중국의 교과서에 기술된 일본:교육의 『혁명

사관』에서 『문명사관』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역사교과서의 변화에 관해 보고했는데 시진핑 정권 성립후에는 회귀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단대학 서정파 교수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자국의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자국의 자료 뿐 아니라 가능한 여러나라의 역사자료와 고고학 성과를 이용해 객관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학교 정순일씨는「국사들의 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민 차원의 역사대화의 사례를 정확히 조사해 「국사들의 대화」프로젝트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생산적인 과제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등학생·대학생 레벨의 「대화」와 학술교류까지를 시야에 넣은 젊은 연구자들의 교류 촉진 방안, 한국의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경험을 참고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국사」의 서술 방식을 함께 생각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고려대학교 김경태씨는 공통의 역사적사건에 관한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해 「임진왜란」이 아니라「임진전쟁」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적 정서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사 교과서」와

「국사연구」가 가져야 할 목표」는 「자신감」과 「자긍심」 이었는데 이는 이미 유효한 목표이 아니며 각국의 정치와 역사적인 특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탁회의 「일본·중국·한국에서의 국사들의 대화의 가능성」은 (공익재단법인)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SGRA)가 2013 년 3 월에 방콕에서 개최한 제 1 회 아시아 미래회의 원탁회의 「글로벌시대의 일본연구의 현상향과 과제」를 시작으로 검토를 거듭해 2015 년 7 월 도쿄에서 개최된 포럼 「일본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해서」에서 와세다대학의 유결 교수가 제안한 「아시아 공공지(公共知)로서의 일본연구」를 창설하자는 제안을 토대로 발전시킨것이다. 본 회의는 지금부터 다섯번 연속 예정인 프로젝트의 첫회로서 제 3 회 아시아미래회의 행사중에 개최되었다. 향후 테마를 집약·구체화하면서 일본인 일본사 연구자, 중국인 중국사 연구자, 한국인 한국사 연구자들의 대화와 교류의 장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하나의 특징은 언어 문제이다. 본 회의는 하기 6 명에 의한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어↔중국어】정리(북경대학), 송강(북경외국어 대학) 【일본어↔한국어】김범수(동경학예대학), 이혜리(한국외국어대학)【중국어↔한국어】이여추(북경외국어대학), 손흥기(북경외국어대학).다음회부터도 가능한 같은 멤버로 진행할 예정이다.

본 회의의 강연록은 SGRA 리포트로 정리해 일본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을 발행할 예정이다.

(문책: 이마니시 준코)